

총선 예비후보 경력에 특정 정치인 이름 뻔다

여론조사 부작용에 '이름 마케팅' 금지... 후보 대표경력 논란 일단락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중앙당에 공식 건의... 선관위 등록 경력도 변경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한 일부 예비후보들의 '꼼수' 대표 경력 논란이 일단락됐다.

〈광주일보 12월26일자 1면〉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과정에 예비후보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경력 중 '이재명' '김대중' '문재인' 등 현 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빼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당내 경선시 대표 경력 표기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 사용을 금지했지만,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약화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꼼수'를 쓰면서 여론조사에 차질을 빚는 등 각종 잡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재명 마케팅'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총선거확단은 당내 경선에서 대표 경력을 표기할 때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때 후보자 경력은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허점을 노려 특정 정치인 이름이 들어간 대표 경력 1개만을 등록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통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 대표 경력 2개를 등록하는 데, 이들은 1개 경력만 선관위에 등록해 여론조사 기관이 어쩔 수 없이 해당 경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다.

이럴 경우 여론조사 과정에 상대 예비후보들과 달리 '이름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형평성과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예비후보들이 '이재명 당 대표' 등 특정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대표 경력을 여론조사에 사용하려는 배경에는 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과의 인

연을 내세워 여론조사 결과 상위권에 오르면 표심 잡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전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과도 중앙당에 선관위 등록 명칭에 '이름 마케팅'을 금지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대표 경력과 직책 삭제 안도 정식 건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름 마케팅'에 열을 올렸던 후보들은 선관위에 등록된 대표 경력에서 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거나 1개였던 대표 경력을 2개로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선관위 등록 경력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률특보'에서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로 바꿨고, 정진욱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에서 '민주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으로 대표 경력을 변경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직책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과 개혁, 쇄신을 강조해 온 예비후보자들이 특정 정치인 인지도에 기대는 모습은 시민들의 정치 실망감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이 예비후보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6일 무안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이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오후 오사카행 전세기에 탑승 수속을 하는 여행객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전남 시도민 10명 중 6명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찬성”

무안군민, 찬성 40%·반대 58% 인구 증가·지역 활성화 찬성 이유

광주·전남 시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광주 민간·군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데 찬성했다. 무안군민 10명 중 7명은 무안군이 통합 이전과 관련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무안군 1027명, 전남도 1015명, 광주시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안군민의 40.1%, 전남도민의 56.1%, 광주시민의 67.4%가 각각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했다.

다만 무안군민은 반대가 58%로 찬성보다 높아, 통합이전에 대한 당위성 설명과 공감대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무안군민의 통합 이전에 대한 찬성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

다. 통합 이전에 무안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58.8%로 과반을 넘어서는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이전에 찬성하는 무안군민 412명은 그 이유로 일자리 및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35.7%),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31.4%), 무안국제공항 활성화(19.6%)를, 반대하는 무안군민 586명은 압도적으로 소음 피해(80.5%)를 들었다.

연령별로는 무안군의 19세 이상 ~ 30세 이하 청년층(46.8%), 60대(4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찬성률이 높았다.

읍면별로는 54.2%의 찬성률을 보인 망운면에 이어 현경면(50.8%), 삼향읍(44.3%) 순으로 높은 반면, 해제면(26.6%) 및 문량면(32.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남도 권역별로는 중남부권 79.9%, 광주권 58.0%, 무안군을 포함한 서남부권 56.1%, 동부권 50.3%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전 연령층에서 통합 이전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민의 79.4%, 전남도민의

83.9%, 무안군민의 70.6%의 응답자가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자리를 전남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답해 대화와 토론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광주시민은 '공항 접근성 개선(40.8%)',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31.9%)', '전남도민은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49.1%)', '공항 접근성 개선(31.6%)'을, 무안군민은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46.5%)', '국내선 유치(13.4%)'를 각각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전남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을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표본추출은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무작위 추출했으며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무안군·전남도 ±3.1%p, 광주시 ±4.3%p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국제 수준 전문예술극장 짓는다

후보자 검토·기본계획 수립·타당성 분석 용역 착수

광주시가 국제적 수준의 오페라와 뮤지컬 등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문 예술극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 수행 기관을 최근 선정했다. 전문 예술극장은 오페라, 뮤지컬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연장이다.

대부분 공연장이 다목적, 소규모인 지역 여건 탓에 세계적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투어 일정에서 빠지는 등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됐다고 광주시는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 기관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부지 선정, 조사업비, 규모 등 연구 결과를 광주시에 제공한다.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구성 단계부터 지역 여론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예정이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해 국비를 유치하려면 규모, 운영 계획 등을 세밀히 검토해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하기 때문

이다.

기본 계획은 국제적 수준의 공연 예술을 무대에 올리고, 평상시에는 시민이 누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운영 전략을 담게 된다.

건립 후보지는 3곳 이상을 검토해 입지별 특성, 장단점, 인근 시설과 연계성, 시설 배치 방안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지를 도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2022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했으며 지난 10월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시아 문화도시에도 광역시 중 광주시만 전문공연장이 없어 세계적 아티스트의 내한공연 때 광주가 투어일정에 빠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예술극장이 건립되면 타지역을 가지 않고도 광주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울 남도학숙 입사생 모집 2024년 1월2일~17일 접수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 남도학숙이 내년 1월 2~17일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26일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에 따르면 내년 모집인원은 동작관 423명, 은평관 303명 등 총 726명이다. 광주 362명, 전남 361명, 장애인 3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27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 또는 전남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복)학생이다.

신규 입사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활 정도를 100%, 재학생은 학교 성적 30%와 생활 정도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세 자녀 이상 가구, 보훈대상자 등에게는 가점을 준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3월부터 입사비 10만원, 월 16만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010-4484-8110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뭏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뭏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원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신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2)

1. 발전사업예고
· 발전소 명칭 : (유)해남순대마을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새항리 170번지 외 37필지 (총 43필지) (행정리 1617-10, 1617-12, 1618-10, 1618-12, 1618-13, 1618-8, 1619-10, 1619-7, 1620-10, 1620-8, 1621-10, 1621-13, 1621-14, 1621-15, 1622-8, 1622-12, 1622-14, 1622-15, 1622-8 / 자용리 1976-10, 1976-14, 1976-15, 1976-17, 1976-18, 1976-19, 1976-4, 1977-12, 1977-15, 1977-16, 1977-8, 1978-11, 1978-16, 1978-17, 1979-10, 1979-14, 1979-17, 1979-3, 1981, 1981-1, 1981-6, 1981-7, 1981-9)
· 공고 기간 : 2023. 12. 26. ~ 2024. 01. 04. (10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 용량 : 92.925MW
· 사업장소재지 : 2023년 12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32. 01. 01. ~ 2051. 12. 31. (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해남순대마을 대표이사인 김 태 원
· 발전사업예고 : 2023년 12월 이후
· 의견제출방법
전화 : 02-6253-8000 팩스 : 02-6253-7777 E-Mail : help@soulenergy.co.kr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신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2)

1. 발전사업예고
· 발전소 명칭 : (유)해남순대마을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새항리 162-9번지 외 42필지 (총 43필지) (행정리 1617-10, 1617-12, 1618-10, 1620-8, 1621-10, 1621-13, 1621-14, 1621-15, 1622-8, 1622-12, 1622-14, 1622-15, 1622-8 / 자용리 1976-10, 1976-14, 1976-15, 1976-17, 1976-18, 1976-19, 1976-4, 1977-12, 1977-15, 1977-16, 1977-8, 1978-11, 1978-16, 1978-17, 1979-10, 1979-14, 1979-17, 1979-3, 1981, 1981-1, 1981-6, 1981-7, 1981-9)
· 공고 기간 : 2023. 12. 26. ~ 2024. 01. 04. (10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 용량 : 90.000MW
· 사업장소재지 : 2023년 12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32. 01. 01. ~ 2051. 12. 31. (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해남순대마을 대표이사인 김 태 원
· 발전사업예고 : 2023년 12월 이후
· 의견제출방법
전화 : 02-6253-8000 팩스 : 02-6253-7777 E-Mail : help@soulenergy.co.kr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건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3천7백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0억 (현금34억)

010-3646-8700(직거래)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기종(770430-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천길 40
· 등락기준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463번지

피상속인 망 이기종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 청법원 순천지원 2023년547호로 신청하여 2023년 12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27일

· 상속인 : 이주중(740102-1XXXXXX)
전남 구례군 구례읍 풍북1길 2
· 신고기간 : 2023. 12. 27. ~ 2024. 3. 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주중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